P6

중증 만성 납중독에 의한 신증에서 장기간의 킬레이트 치료의 안전성

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내과

송민수, 양종오, 이은영, 홍세용

배 경: Calcium disodium etylenediamine tetraacetic acid (CaNa2 EDTA)를 이용한 킬레이트 치료가 체내 납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, 중증 만성 납 중독에 의한 신증 환자에서 반복적인 킬레이트 치료가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명백하지 않다. 본 연구자들은 중증 만성 납 중독에 의한 신증이 있는 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매달 CaNa2 EDTA를 투여하면서 신기능의 변화 및 임상병리 검사를 추적검사하였다.

방 법: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농약중독연구소에 내원한 중증 만성 납중독 환자 3명을 대상으로, 1998년 2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매월 1g의 CaNa2 EDTA를 3-5일 동안 정맥주사하였다. 총 48-86g CaNa2 EDTA가 투여되었다. 매월 중경골(mid tibia) 납, 킬레이트 가능한 납, 혈중 납 수치 및 신기능을 조사하였다. 킬레이트 치료 전후로 신생검을 시행하였다.

결 과: 골피질의 납수치는 수년간의 반복적인 킬레이트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높았다(>200μg Pb/g bone mineral). CaNa2 EDTA 치료 중 혈중 납과 신기능의 변화는 없었다. 혈중 요산, 혈색소 및 혈압의 변화도 없었다. 간질의 섬유화나 사구체 경화 등의 악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.

결 론: 장기간의 CaNa2 EDTA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킬레이트 치료는 안전하며, 신병리가 이미 시작된 중증 만성 납중독 환자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치료방법으로 생각된다.